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중 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14:1-12 (구약 217쪽)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존재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김훈태 / 구은강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목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도행전 2:5-15

목상제목: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 2:13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은혜로 지켜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평범한 일상, 이 기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 물질만능주의, 이상숭배, 시기와 질투, 방탕함, 등 육신의 일만을 쫓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삭막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저희 자녀들의 세상은 얼마나 더 무섭게 변할지 두렵고 떨립니다. 끝없는 욕망과 교만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코끝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전,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지상의 천국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지혜와 능력,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며, 저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고, 저희가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가정과 건강,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사역이 되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교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사역에 힘쓰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르지만 용납과 관용,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복무, 직장과 사업, 가정과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영과 육으로 잘 양육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남은 삶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는 Jacob 전도사를 기억해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지혜와 능력,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주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사모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잘 다져진 저희의 마음 발이 옥토가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 “각 학카칠”은 “베틀다 획득하다 수확하다”에서 파생된 명사(학카칠)로 “열매를 거둬, 추수함”을 뜻한다. 노동과 그 결실에 대한 감사절이다. 성회로 모여 5가지 제사(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요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다(레23:21). 오순절로 개명 되어 신약성경에 사용된다(행 2:1, 20:16; 고전 16:8).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전해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기로, 봄철 첫 곡식을 거두는 때, 신령한 첫 열매를 천국에 모으는 때다.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되어, 이후 교회들의 모형이 되었다.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영적 재무장을 갖추며, 구원 받을 성도를 교회로 모으는 시기이다.

구약성경에 “영(성령)”이란 표현이 약 380회 나온다. 보통 “호흡” “바람”이란 단어로 능력을 뜻한다. 때로는 아주 강력한 현상을 동반한다. 신비로운 현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아래 나타났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며 또한 거두어 가신다. 성령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꾸준히 알려오셨고, 생명의 원동력이며 창조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 장로들의 경우 예언과 지도력, 사사들의 경우 용맹과 이스라엘의 구원, 삼손의 경우 힘을 부여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이끄셨다.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성령님은 이방인 같지만, 성령님을 떠나 존재하지 못한다. 때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감동을 받은 사람의 사역이, 쉽게 구별되지 않을 만큼 아주 밀접한 긴밀했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개인적으로 또한 계시(예언)를 통해 뚜렷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삶에서 실현하도록 인도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경배하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또한 온전하게 변화시키신다. 성령님과의 긴밀하게 교제할수록 더욱 진취적인 삶이 되었다. 선지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선포되었고, 새 마음, 새 영과 새 언약이 약속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전례 없던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들의 담대함과 지혜에 공회와 유대인은 크게 놀랐다.

사도행전을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였다. 성령님이 모든 사역과 성도를 인도하셨다.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공급하셨다.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성장했다. 성령님이 능력을 교회와 성도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만큼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1.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보호와 공급함을 누리며 나누는 가정과 성도가 됩니다.
2. **어린이 주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혜와 은혜가 넘치며, 사랑과 존중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 **평화와 자유** 전쟁과 갈등이 끝나도록 기도합니다.
4. **연합사역** 찬송이야기의 **목요찬양모임(9)**을 벨엘침례교회(1575 S. Wolf Rd., Des Plaines) 저녁 7:30에 가집니다.
5. **성경읽기운동**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6.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7.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3:00-4:00pm)
8.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 합시다. 매일 첫주(살롬교회에서)와 셋째 주 금요일(섬김의 교회에서)의 찬양예배는 **살롬장로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9.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사회의 믿음회복과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소식 스위스방문: 유명원 성도(10일까지)

생일축하 Jacob Kim(7) 구 민(8) 구민우(16)

5월 사역

어린이주일(5/5) 만남/나눔 주간(5/5-11) 어버이주일/Mother's Day(5/12) 성장/성숙 주간(5/12-16) 성령강림 주일/Oikos 모임(5/19) 선교주간(5/26-6/1)

한 주간의 말씀 스가라 4:6-7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장애물 때문에 불평하며 포기하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정에 치우쳤다.
 둘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노예로 살던 과거를 동경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자.

말씀요약

인류는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서로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마음, 실패나 좌절과 생사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칭송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다. 앞서 가나안 땅의 희망과 미래는 분명히 보았지만, 10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판단하지 않던 사건을 살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어졌다.

첫째, 열 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통곡했다. 모두가 소리를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너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했다. 믿음과 이성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모두 잊었다. 시시로 바뀌지만, 사람의 감정은 영향력이 크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갖자.

둘째,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좋아도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가나안으로 왜 이끌고 왔느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미래가 없는 상황을 원망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다.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조상 탓"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셋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잃고, 과거를 동경했다. 자유를 잃고 강제 노동하던 과거, 심지어 아들을 나일 강에 제물로 받던 곳, 하지만 그들의 안전과 생존은 보장되었다. 당장은 편하고 안락한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자.

이스라엘은 감정에 치우쳐 통곡했고, 원망의 대상을 찾았고, 세상을 선택했다. 믿음을 회복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인생, 꿈과 소망을 잃지 말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어려움, 파병된 자녀의 안전,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녀, 건강의 회복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살롬교회/찬양이야기 사역

선교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사역들과 사역자들이 되도록
3. 가족들의 구원,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맑은 사역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예배 섬김이

	5월 5일 구 민 집사
주일 기도 인도	12일 최내권 집사
	19일 김훈태 집사
	26일 구은강 집사
	5월 5일 김훈태/구은강 집사
주일 봉헌 인도	12일 구은강/박진성 집사
	19일 최내권/오정은 집사
	26일 오정은/최내권 집사
주일 예배 안내	5월 김훈태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